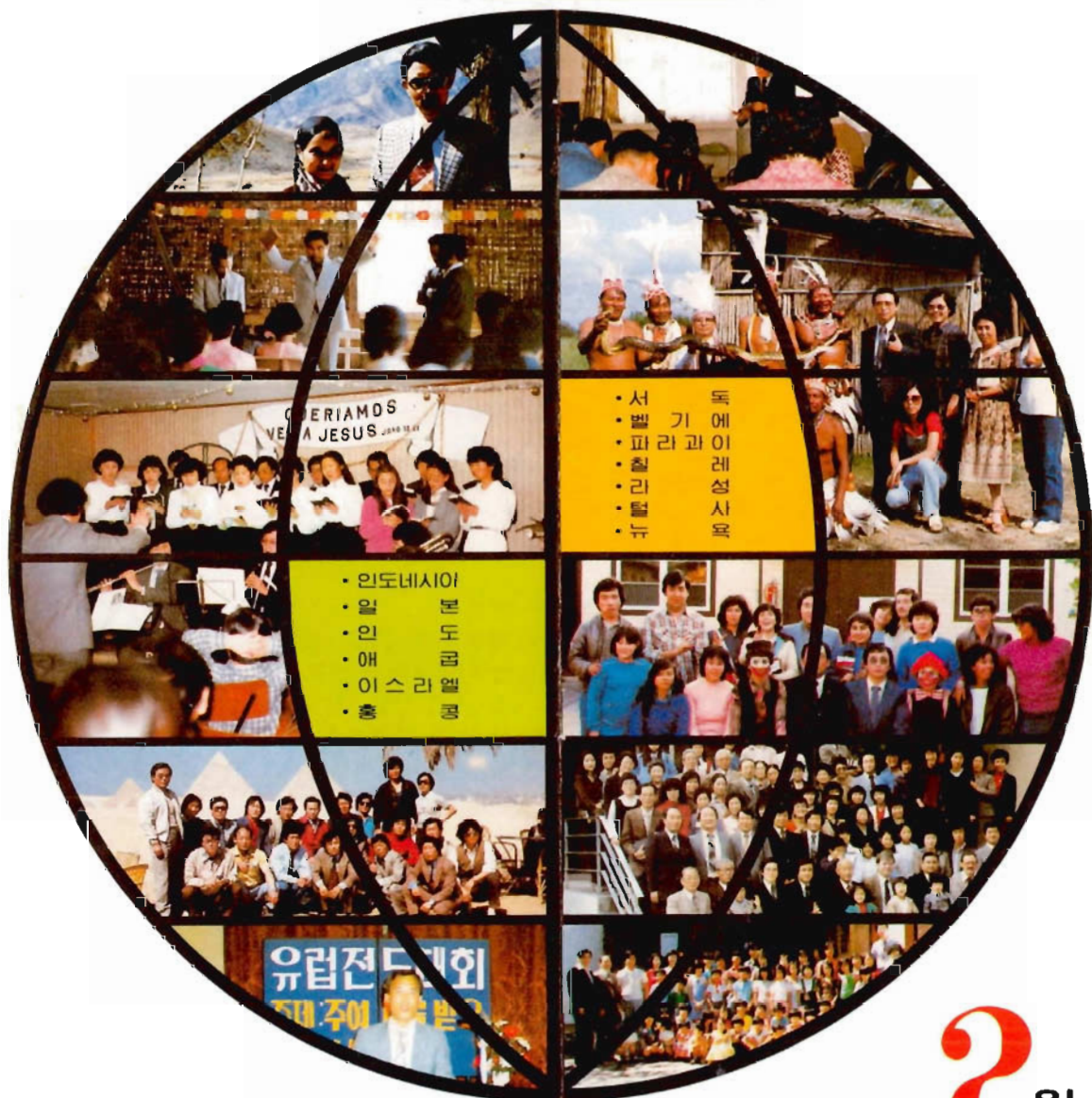


월간 충현

선교의 달



• 서독
• 벨기에
• 파리로
• 칠라
• 탈뉴

• 인도네시아
• 일본
• 인도
• 애덤
• 이스라엘
• 홍콩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2월

1985년

식인종이 없어지다

캐디는 식인종들이 사는 유헤드라이드 섬에 선교사로 갔다.

그는 식인종들의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생명을 내어놓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교했다.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가르쳐 주었고, 찬송도 가르쳐 주었다. 그 결과 섬은 복음화되었고, 캐디는 신자들의 찬송을 들으며 그 땅에 고이 잠들었다.

캐디가 죽은 후 복음을 받아 신자가 된 식인종들을 비석에 다음과 같은 글을 새겨 캐디를 기념했다.

“1848년 캐디가 상륙했을 때 이 섬에는 신자가 하나도 없었으나, 반대로 1871년 캐디가 주님 품에 안겼을 때에 이 섬에는 식인종이 하나도 없었다. .. 이 얼마나 가치있고 보람된 일생을 보냈는가 !

충현교회가 마약 중독자들이 우굴거리는 곳에 선교사를 보냈고 세월이 지나 그곳에서 선교의 사명을 마쳐어 감사패가 왔다고 하자.

“1985년 충현교회 선교단이 도착했을 때는 크리스찬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19××년 충현교회 선교단이 철수했을 때는 이곳에 범죄자와 마약 중독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된 감사패를 충현교회가 받게 된다면 참으로 보람된 일이라 하겠다.

이 시대에 세계와 공산권을 향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나라는 과연 어디인가 유럽의 독일이나 영국이겠는가 아니면 미국이겠는가 ?

구미 제국들은 이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다. 유럽은 기독교의 문화권 위에 세워졌고 대다수의 나라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있지만 주일 예배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숫자는 전 인구의 5%, 많아야 10%에 불과하다.

그러면, 청교도의 후손인 오늘의 미국은 어떤가 ?

그 옛날 조상들이 물려준 풍부한 물질의 혜택을 만끽하고 있으면서도 선조의 청교도적 신앙은 탈색되어가는 것 같다. 또한 미국교회가 선교사를 보내려해도 지원하는 젊은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한다. 한 세기 전의 언더우드, 아펜젤러와 같은 피끓는 선교의 사명을 가진 자가 지금은 아주 희소하다.

그러면 오늘 뜨거운 마음으로 선교할 수 있는 나라는 어디인가? 세계 기독교 여론이 독일, 영국, 미국보다는 먼저 한국을 지적한다.

선교하는 나라와 교회에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 독일이나 영국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는 1 등 국가의 영화를 누렸었다.

또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미국을 불과 300여년의 짧은 역사에서 세계에서 제일 강하고 가장 부요한 나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그 나라는 땅만 파면 금이 쏟아지고 석유가 솟구치는 자연의 혜택도 받았다.

오늘 한국의 교회가 선교의 전진기지로서 땅끝까지인 북한에까지 이르는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멀지 않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고, 이 땅의 교회도 가장 은혜스럽다는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주간 이 성근

五大目標

天國일꾼養成
北韓宣教
民族福音化
世界宣教
聖殿建築

월간 충현

1972년 4월 30일 창간
제 13권 제 1호
통권 125호

충현교회의 신조

우리는 전통적 개혁주의에 임
각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과 대소요리문답을 우리의 신
조로 하여 신앙생활을 확립하
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
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
다.
2. 천국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2월호

차 례

권 두 언 /	주 간	2
이달의말씀 /	선교하는교회	김창인

기획특집

1. 세계선교에 대한 비전	한경일	6
2. 교구활동의 활성화	장정일	9
3. 새 예배당건축(제 3 차공사를 앞두고)	김기정	11
4. '85년도 교회재정 운영	이응선	13
충현논단 / 신약 성경에 나타난 안식일	이병학	15
교회성장코너 / 배가운동을위한 전도법	이세열	19
여류작가 초대석 / 도살당하는 양들틈에서	이건숙	22
충현컬럼 / 바른신앙 고백	손경수	24
신앙도서 소개 / 기독교의 기본 진리	정관호	28
선교사 선교소식	세계선교회	25
교우 문예 / 단상	노경모	8
교회소식		29
이달의 교우동정		33
이달의 행사 및 편집후기		34

□ 표지사진설명 □

2월은 세계 선교의달이다.
충현 세계선교회 17주년이
되는 금년은 11번째 선교
주일도 지켰다. 현재 11개
국에 14명 선교사가 파송
되어 선교사역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





김 창 인

(목사·본교회당회장)

선교하는 교회

우리가 흔히 선교, 전도하는데 그 말의 정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라 하면 흔히 국내에 같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고 국외의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선교와 전도는 뜻이 다른 것입니다.

선교의 필요성에 대하여 생각합시다.

1.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 입니까

(1)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전도해라!”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힘들고 괴로와도 꼭 해야 합니다

(2) 선교는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큰 영광을 떠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곧 전도하시려고 오셨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완전한 자격을 가지신 전도자이시요 곧 선교사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여러 번 부탁하셨습니다.

(3) 선교는 성령님의 권면입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 속에 “너희는 전도해라!” “너희는 선교해라!”하고 부탁하십니다.

(4) 선교는 지옥에 간 영혼들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지옥에 간 영혼들이 전도해 달라고 부르짖는다고 하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복음 16장에 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큰 부자는 자색옷을 입었습니다. 이 자색옷을 입었다는 것은 권세가 당당하다는 말입니다. 장관 이상이란 말입니다. 날

마다 잔치나 벌여 놓고 백성의 형편이야 어떻든 아랑곳없이 사치와 향락에 들떠 있는 방중한 자입니다. 이 부자는 백성의 기름을 짜서 먹었음이 틀림없읍니다.

한편 이 큰 부자가 사는 크나큰 집 대문 밖에 나사로라는 앓는 거지 한 사람이 있었읍니다. 그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잣집에 많은 사람이 출입하며 맛있는 음식을 먹고 노래 부르는 것을 들으며서 냄새나 맡으며 코로 배불렀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래 언제나 배가 고파서 부자가 먹던 상구석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라도 배를 불러보았으면 하던 거지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다 죽었읍니다. 부자가 세상에서는 악을 행해도 세력이 있으니 말할 사람이 없었고 백성을 괴롭혀도 뒷탈이 없었고 돈이 많아 호화로왔으나 지옥에 뚝 떨어지니 무서운 윗불에 썩넌, 백넌, 천넌, 밤낮으로 계속 탑니다. “아이고 뜨거워라!” 뜨거운 것도 기가막힌데 목이 탑니다. 그러다가 앞을 바라보았읍니다. 천성이 안 보이면 좋겠는데 보이니 더 기가 막힙니다.

천국이 보입니다. “야, 좋은데도 있구나!” 그러며 보는데 더 기가막힌데 자기집 대문 밖에서 얼어먹던 거지가 영광의 옷을 입고 천군천사의 반열에서 할렐루야를 부르며 아브라함의 품에서 사랑을 받습니다. “야, 저게 저게”기가 막힙니다. 그래도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열흘 치만 미리 먹어 두면 여행이 쉬겠건만 사흘치도 미리 먹어두지 못하는 인생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었다고 별 재간이 있나요?

지옥불 속에서 “아버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부르니 “왜 그러냐?” 대답이 옵니다. “나 목말라 죽겠읍니다. 나사로를 내게 보내시어 손가락 끝에 물방울을 내 혀에 떨어뜨려 주세요.” 냉수 한 그릇 달라고 해도 켜켜하겠는데 부자도 지옥에 가니 천하에 제재한 사람이 되고 말았읍

니다. 그런데 음성이 다시 들려옵니다. “안된다./” 거절입니다.

그 때에, 그 부자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허락되지 않으면 한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뭐냐?” “나사로를 내 고향에 보내어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여기에 안오게 해 주세요./”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옥에서 고생하는 저 생명들이 내 백성에게 전도해 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십니까?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선교는 예수님의 부탁이요,

선교는 지옥간 영혼들이 부르짖는 소원이니

우리는 아무리 피로워도 선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2. 선교하는 교회와 백성이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선교사를 보내놓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미안한 말로 인정도 감정도 없는 사람입니다. 내 아들 군대에 보내놓고 기도하지 않는 부모님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막내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는 하루에 두 번 이상 나도 모르게 기도가 쑥쑥 나옵니다.

하물며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고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를 안하겠습니까. 그 무시무시한 전쟁터, 최전방에 보내 놓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너무 무심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또 전쟁터에 보내었으니 먹을 것도 보내야 싸우겠지요. 또 탄환도 총도 보내줘야 싸우겠지요. 그러므로 선교사를 보냈으면 기도를 해야 하고 현금을 해서 물질을 보내어 생활비를 보내야 하고, 선교사가 움직이며 전도할 수 있게 활동비를 보내야 됩니다. 전쟁터에 무기를 보냅니다.

이렇게 선교사를 보내놓고 기도하면 선교사가 은혜를 받기 전에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선교사를 보내놓고 현금을 바치면 선교사가 그 돈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 얼마 바쳤구나” 웃으시며 하늘나라에 기록해 놓으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리하여 선교하는 개인이, 기도하는 개인이, 기도하는 가정이, 현금을 보내는 가정에, 현금을 보내는 교회와 민족이, 심령의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악마가 손 못대는 국방의 복을



받습니다.

미국은 세계 각지로 파송된 선교사 가운데 절반 이상을 보냈는데 그들은 선교사업을 하기 때문에 다 굶었습니까? 아닙니다. 굶기는 커녕 오히려 그들은 세계를 구제합니다. 또 세계를 보호합니다. 국방력이 튼튼합니다. 어느 나라보다도 지식이 앞서고 문명의 최첨단을 걷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교사업하는 개인, 선교사업하는 가정, 선교사업하는 교회는 안되는 일이 없고 선교사업하는 나라에 손대는 악마가 없습니다. 선진국가가 됩니다. 그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선교사를 많이 보내야 사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합니다. 눈감고 주먹구구로 하는게 절대로 아닙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탁입니다. 끊임없는 성령님의 권면입니다. 지옥불에 가서 고생하는 영혼들이 부르짖는 소원입니다. 선교는 전쟁이니, 우리는 격전장에 보낸 이들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해야 합니다.

하루에 한 사람을 위해 「예수 믿자./」고 전하십시오. 금년에는 누구에게 전도하나? 일년에 한 사람이라도 정해 놓고 전도해야겠습니다.

선교 주일을 지키는 오늘부터 선교사업을 위해 하루 두번 이상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선교에 대한 비전

- 선교의 달을맞아 -



한 경 일

(장로·충현세계선교회회장)

1968년 11월24일 창립된 우리 충현세계선교회는 금년에 벌써 제17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선교의 달을 맞이하여 충현 선교사와 선교지의 모습을 살펴 보면서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 선교를 알지도 못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얻은 귀중한 선교의 경험과 지식을 살려 세계선교의 비전을 간략히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인도네시아에 원주민 선교를 위하여 파송한 서만수 선교사는 그동안 직접 간접으로 42개처 되는 현지인 개척교회를 설립하였고 그중에 2개처는 이미 자립하였다.

한편 한인교회를 설립하여 해외성도의 신앙을 지도하고 교포복음화를 이룩하는 등 다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한인교회 목회에 관한 많은 오해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선교사 자신의 목회와 생활의 자립이 가능해 졌을 뿐만 아니라 현지에 적응할 능력을 가질만큼 열심히는 선교의 후원자들이 나타나고 선교사 지망자도 나타나고 있는등 선교하는 교회로 괄목할만큼 성장하였다. 그동안 교민사회와 민간외교에 끼친 공헌으로 우리 정부의 대통령 표창까지 받고 모든 선교사들이 축출되는 가운데서도 선교사 영주권 제1호를 받았다.

더구나 이번에 파푸아뉴기니아섬의 서쪽 이리안 자야 주 정부에서 선교협력을 요청해와서 선교사 2명을 긴급히 파송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기독교 대학을 세워야하는등 선교의 큰문

이 열렸다. 심지어 경제적인 합작 사업의 길까지 열리고 있다. 이와같이 인도네시아 선교는 원주민 선교의 성공적인 모델로서 동시에 한인교회가 갖는 전략적인 의미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이런 성공뒤에는 정영옥 사모의 눈에 보이지 않는 내조가 자리잡고 있기에 부부가 다 함께 선교사 훈련을 받게하는 것도 앞으로 선교사 후보자 육성에서 꼭 검토해야 할 사실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한인교회를 세운 후 현지인 선교를 개척한 파라과이와 칠레 교회의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우리는 교포선교의 실재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다. 먼저 경제적으로 자립하며 교육관을 증축하고 새성전을 건축하는등 자체 체질 강화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현지인 선교의 일환으로 원주민 개척 선교사를 지원하였고 그와같은 현지인 선교에 대한 열의가 '84년도에는 열매로 나타나서 현지인을 상대로 하는 개척 선교 교회를 세우고 담임 교역자로 현지인 사역자를 세울뿐 아니라(칠레) 현지 문화와 언어에 적응한 한인 전도사를 세웠다. (파라과이) 해외에 나가있는 교포들은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아주 팍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해외 한인교회 목회는 국내의 일반 목회와 성격이 많이 다르고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도 천차 만별이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자립이 되고 한번 선교에 눈을 뜨기만하면 국내 개척교회를

돕고 해외의 다른 선교지를 도울 뿐만 아니라 자신이 현지인 선교에 뛰어들고 다른 지역의 선교사로 나가는 헌신자들이 나타나는 등 현지인 선교의 전진 기지로서 인적 물적 자원의 공급지 역할까지 담당하게 된다.

이미 파라과이에서는 원주민 선교사 10명을 지원해왔고 칠레에서는 고아원들과 함께 개척 교회들을 보조하고 현지인 사역자를 육성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우리는 교포 선교의 장단점을 분명히 알고 잘 활용하는 입장에서 본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

또 한편 애굽과 같은 직접 전도가 불가능한 회교권 지역의 선교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교회를 빌려 예배를 드리는 형편은 나아진 것이 없지만 국가에서 외국 교회의 자격을 인정하고 공인해준 것은 우리 충현선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앞서 순직하신 고 이연호 선교사의 헌신과 무엇보다도 이준교 선교사의 성실하고 희생적인 봉사의 열매라 아니할 수 없다. 현재 10개처의 현지인 교회를 지원하고 신학생과 의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텃밭주이 촌을 전도하는 등 사회사업과 함께 현지인 사역자와의 협력을 통해 선교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우리가 어려운 형편가운데서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선교지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정보와 자료를 입수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지의 선교 단체와의 유대관계와 협력은 매우 중요한 일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한인선교에 있어 중요한 전략 중의 하나는 해외교포 밀집 지역에 지교회를 세우고 선교에 참여하게 하는 일이다. 아시아나 유럽 중남미 지역과 달리 북미 지역에는 교포들 숫자도 많을 뿐 아니라 본교회 성도들이 많이 나가 있고 황무지 같은 그곳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지도해줄 경진한 목회자들을 원하고 있다.

가짜 혹은 엉터리 교역자들이 과거에 물을 흐려놓은 까닭에 파송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진실한 질차를 따라가면 가능한 일임은 이미 강성진 목사나 라성의 정상우 목사를 파송한 경험이 잘 증명하고 있다. 이지역은 경제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여유가 있는 교포들이 중심이 되어있으므로 자립 체제만 갖춰지면 즉시 선교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자매 교회인

뉴욕 빌립보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잘 알 수 있다.

라성충현교회는 앞으로 세계복음화를 위한 해외본부 역할을 담당할 전략적인 매우 중요한 교회로 이미국내의 여러개 개척교회를 지원해왔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애굽을 후원하기도 하였다.

라성은 기후나 주변 환경 조건이 좋아 선교사들의 안식년 휴식처로서 알맞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신학교와 선교 훈련 단체들이 집중되어 새로운 세계선교의 중심지가 되어있고 가까운 중남미에 좋은 선교 배후지를 갖고 있어 선교사의 훈련장으로 최적지이기도 하다.

본 바와같이 충현 지교회들은 전략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목표와 의의를 가지고 있는 선교의 영역으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두고 추진해야 할 중요한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선교받은지 100년 밖에 되지 않은데다 선교의 눈을 떴다고 하지만 아직도 선교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너무나 부족하기에 전문적인 선교에 당장 뛰어들만한 여건 조성이 안되어 있고 하루 이틀 사이에 이루어질 일도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구 특히 미국도 중요하지만 유럽의 선교 선진국들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

서독의 경우 네개의 한인교회를 세우고 지금도 새개를 목회하는 가운데 현지인 사회에서 차차로 인정받고 아직 완전 자립은 어렵지만 해외 개척교회를 지원하는 등 선교의 열의가 자라나고 있다. 벨기에에는 여러가지 여건이 좋지 못해 자립에 어려움이 있지만 현지에 입양한 성년이 되어가는 교포선교와 유럽복음화 및 공산권 선교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북한 및 공산권 선교에 관여하는 우리 충현의 선교사들 모두가 참여하고 있지만 특히 중공과 북한 선교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 홍콩에 지교회를 세우고 오치용 목사를 파송하여 다시 홍콩만 목사 소천으로 인한 공백을 메우고 선교활동을 시작하였다.

마카오 중국인 교회와 중국인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만렬 선교사 및 엽영택 목사와의 협력 선교도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우리 선교 비전에서 또 한가지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곳은 일본의 유명세 선교사와 인도 스리나가르의 엘리야 겔간 선교사이다. 직접 현지인만을 상대로 선교하는 곳이며 평신도 선교의 의의와 현지인 선교사의 활동 범위를 생각케하는 좋은 선교의 모델이 되고있다. 유

병세 선교사는 성실한 봉사와 헌신으로 외국인으로 정부 기관인 진료소의 소장에 임명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부부로서 이윤호 권사와 팀을 이루어 선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엘리아겔간 선교사는 성경번역 사업과 지역 사회 개발을 통한 선교라는 관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갖고 있다. 이렇게 전문적인 자질을 가진 평신도 선교사의 계속적인 파송과 함께 이를 육성하고 키우는 것은 현지인 선교와 세계복음화에 더욱 큰 부분이 될 가능성도 있기에 유의해야 하겠다.

이상 우리는 총현선교사와 선교지의 개략적인 상황과 선교전략과 비전에서 갖는 의의를 생각해 보았다. 요약하자면 우리 총현 세계 선교회는 민족복음화와 북한 선교의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세계선교 및 복음화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한인교회 및 지교회를 설립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장기적

인 안목에서 시간을 요하는 원주민 개척 선교를 목표로 전진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본부에서는 전문적인 자질을 가진 실무자를 육성하여 선교의 큰 사업을 담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선교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선교사 후보자 및 후원자를 개발하기 위하여 선교사와 선교사업을 위한 기도회, 강연, 부흥집회, 세미나등 각종 행사를 갖고있다. 보다 전문적인 연구와 준비를 위해서는 선교 연구소를 설립하고 활용하며 앞으로 본격적인 선교 훈련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앞으로 서울에서 열릴 '86년의 아시안 게임과 '88년의 세계 올림픽을 내다보며 세계 선교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한국교회의 일원으로 앞장서서 지도해 나가야 할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하겠다.

독자단상

전문성 인식의 결여

노 경 모 (집사)

하나의 팀이 성장하고 발전 하기 위해서 역점을 두는 세가지 영역이 있다.

'조직' 과, '직무훈련' 과 '자아개발' 이 그것이다.

유기체적이고도 협동적인, 인격적인 관계속에서 형성되어진 조직은 성장의 기초요, 뼈대가 되는 것이다.

팀속의 한 멤버가 자기가 담당한 분야에 충실해지고, 그 영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선 그 분야에 대한 직무훈련이 필요하다. 즉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는 일이다.

그리고 한 멤버이기에 앞서 훌륭한 인간으로서의 인격을 소유하기 위해선 끊임없는 성찰과 자기개발이 필요하다.

교회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팀이다. 사무적이고 명령적인 조직보다 사랑과 순종과 이해와 용서가 마디 마디 마디 연결지어진 인격적인 조직과, 말씀과 기도로 늘 자신을 반성하고 다듬어 나가는 신앙적인 자아개발이 교회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관심에서 멀어진 분야가 있다.

교회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자들의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그 분야의 전문화를 이룩하는 일인것이다.

한사람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것이 아니며 또한 그렇게 해서도 아니 될것이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습득한 분들이 각 분야를 담당해야 할 것이다.

한사람이 무슨 일이나 다 잘 할수 있어야 한다는 관념은 급변하는 사회속에서 교회 성장을 저해시키는 요소로 남게 될런지도 모른다.

각 분야 담당자를 전문화시키기 위한 계속적인 교육과 훈련 및 전문적인 인재 양성과 확보가 절실하고 시급하다.

이 과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역시 알 보다 두자가 필요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이러한 문제 의식을 갖는자가 소수이기 때문일까?



교구 활동의 활성화

장 정 일

(수석부목사·구역권찰회 회장)

구역운영이란 말은 목사가 자신에게 맡겨진 주님의 양무리를 온전하게 돌보기 위하여 성도의 가정을 작은 조직으로 묶어 교회의 일을 구체적으로 봉사케 하는 교회 조직의 기본적인 행정 단위를 말한다.

교회의 3대 사명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 예배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과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는 전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구역이 조직된 것이며, 선지자의 직능과 이러한 사명을 효율적으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확장되기 위해서 살아있는 유기체인 구역의 역할이 중요시 된다.

구역이란 : 첫째, 구역은 교회 모임의 기본 단위이다. 교회의 최소 단위가 성도의 가정이라면 교회 모임의 기본적인 단체가 구역이다.

둘째, 구역은 신령한 가정 단위이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인 구역은 신령한 하나님의 가정 식구들이다.

셋째, 구역은 생명 조직체이다. 모든 생명이 세포분열을 통하여 성장하듯이 구역의 성장을 통하여 교회는 생명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구역권찰회에서는 먼저 84년도의 구역활동을 정리해 보고, 다음에 85년도의 구역운동과 그 방향을 몇가지로 제시코자 한다.

1. 84년도 구역활동

지난 해는 교회가 새성전으로 이사하는 해였다. 그러므로 구역조직과 활동도 새성전 시대를 향한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었다.

먼저 교구를 확장하고 행정을 보완 하였다. 83년도 5개 지구(교구)를 84년도에는 10개

교구로 확장하고 전체 교역자중 교구 담당 교역자를 5대1 비율에서 5대2 비율로 보완하였다. 행정에 있어서도 84년에는 구역행정과 목회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증원하였다.

다음에 구역전도에 역점을 두었다.

83년도까지 구역활동을 심방에 역점을두었으나 84년도에는 새성전 시대를 맞아 구역전도에 역점을 두어 교구 성장을 추진하여 전도하는 구역으로서의 사명감을 고취하게 되었다.

지난 30여년 동안 우리 교회가 성장한 추세 중 등록된 교인 현황을 보면 67년까지 1087세대가 등록되었고 68년262세대, 69년305세대, 70년 258세대, 71년 244세대, 72년 289세대, 73년 334세대, 74년 364세대, 75년 503세대, 76년 516세대, 77년 595세대, 78년 612세대, 79년 637세대, 80년 872세대, 81년 1035세대, 82년 860세대, 83년 703세대, 84년 12월 말 현재 1409 세대였다. 그 동안 제적된 세대는 3867세대로서 등록된 세대 중 현재 우리 교회에 남아 있는 세대의 비율은 절반 정도라고 볼 수 있다.

2. 85년도 구역운영 방향

1) 구역권찰회의 목표 : 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배우고 일하며 전하자 라는 표어 아래 교회의 5대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 주세성구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이며, 주세찬송은 '날 위하여 날 위하여' (426장)이다.

② 85년도 전도 등록목표는 2400세대이며 교구별로 등록목표를 세분화 하였다. 1교구 427세대, 2교구 225세대, 3교구 216세대, 4교구 104세대, 5교구 146세대, 6교구 162세대, 7교구 277세대, 8교구 300세대, 9교구 200

세대, 10교구 139세대, 기타 자연등록 204세대로 정하였다.

3. 85년도 구역운영의 기본방안

1) 심방 : ① 교역자들이 실시하는 심방은 대심방(노인대심방 포함) 1회, 등록심방(수요일까지), 유교심방을 종전과 같이 수시로 시행한다.

② 구역일꾼들이 실시하는 심방은 구역대심방 수행 년 1회, 구역심방 주 1회 이상, 유교심방을 수시로 시행한다. 특히 구역심방은 구역예배 전에도 미리 심방을 하고 가급적 자주 구역식구들과 교제를 나누도록 한다.

2) 전도 / ① 총동원전도 : 4월과 9월을 '총동원 전도의 달'로 정하고 4월 28일과 9월 22일 주일을 '총동원 전도주일'로 정하여 전교인 동원전도를 실시한다.

② 교구별전도 : 매월 세째주일 지난 금요일을 '교구전도의 날'로 정하고 구역 단위로 전도를 실시한다. (단, 1. 8. 12월은 실시하지 않는다.)

81년도에 등록세대가 1035세대로 전년도와 후년도에 비해 월등히 많았던 이유는 그해 교회가 총동원전도에 힘을 모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교회나 개인이 전도에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에 따라 교회성장을 좌우한다고 하겠다.

3) 교육 / ① 교역자교육 : 년 2회에 걸쳐서 교역자의 영적인 무장과 목회적인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역자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구역일꾼교육 : 년 3차에 걸쳐서 지역장, 부지역장, 구역장, 권찰교육을 실시한다. 구역의 중심인물은 구역장인데 그가 얼마나 자질있고 열심있는 구역봉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힘에 있는 구역이 되고 부흥하는 구역이 되기 때문에 구역일꾼교육은 대단히 중요하다.

③ 구역성경교사교육.

성경연구원에 의탁하여 자질있는 구역교사를 양성한다.

④ 70인전도요원교육.

전도위원회에 위탁하여 능력있는 전도요원을 양성한다.

⑤ 총동원전도대원훈련.

'총동원전도주일' 전주간에 2차에 걸쳐 전구

역 일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4. 구역활성화를 위한 모임과 행정

1) 교구목회 중심 구역활동

새성전으로 이전하고 교구목회실이 마련되었다. 구역장은 주일에 반드시 교구목회실에 들어서 담당교역자 만나고 간다. 교구교역자는 교구운영위원을 활성화하여 구역에 관한 영적 봉사와 교인동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한다. 새로 우사진을 교구목회실에 부착하고 관심을 갖고 양육한다.

2) 주일 교구모임강화

구역일꾼이 구역봉사를 소홀히 하면 그 구역은 침체되고 만다. 그래서 구역일꾼을 격려하고 관리하는 교구모임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 시간은 구역을 위한 기도 및 영적인 교제, 그리고 구역의 사무행정을 다루는 시간이다.

3) 교구야외예배와 교육.

교구별로 1년 1회 야외교육을 실시한다. 시기는 4월 8~19일 중에 실시하며 대상은 구역식구 전원이다. 그리고 구역장 야외교육은 가을에 실시한다.

4) 모범구역 및 모범구역원 표창

월 1회 구역과 구역원 중에서 구역활동에 모범이 되는 구역과 구역원을 표창한다.

이상과 같이 85년도 구역권찰회의 전반적인 사업 및 방향을 제시하였다.

구역이 교회에서 갖는 위치는 대단히 중요하다. 구역은 살아 있는 세포요 성도의 신앙을 성장케하는 양육장이다. 그리고 봉사자를 낳는 산실이다. 모범적인 구역은 모이기를 힘쓰는 구역이요 사랑으로 하나되는 구역이요 이웃에게 생명을 주는 구역이다. 구역장 마다 믿음의 구체적인 꿈을 갖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봉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구역과 구역일꾼이 되어야 하겠다.

1월말 현재 구역권찰회에서 집계된 교인수는 11,667명이고 세대수는 5,436세대이다. 그리고 신급별 교인 현황은 세례 6,377명, 유아 세례 999명, 입교 578명, 그리고 학습 877명과 원입 2,836명이다. 구역수는 총 791구역으로 교구별로 비등하게 분할되어있다.

새예배당 3차공사를 앞두고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김 기 정
(장로·건축위원회위원장)

1. 새 성전 건축의 역사

1953년 9월 6일, 6.25동란의 폐허속에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세워진 충현교회는 오는 1985년 9월에 교회 설립 32주년을 맞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온 충현교회는 설립 당시의 천막 교회로부터 몇 차례의 성전증축 공사로 이어왔지만 몰려드는 성도들을 감당하기는 어렵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교회는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인 1963년 교회설립 10주년을 맞으며 민족 복음화, 세계선교, 천국일꾼 양성을 교회 목표로 선정하여 많은 교인과 천국일꾼 양성을 위해 새로운 교회당 설립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교회당 건축을 정한 교회는 부지 선정에 있어서도 긴 안목과 당시 사회여건, 국가시책 등을 참조하여, 그 당시 만해도 개발이 요원하게만 보였지만 서울의 인구증가 추세와 이에 따르는 분산책에 앞장 서는 한편 보다 넓은 공간의 확보를 위해 한강수 이남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20,000여평의 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적당한 후보지를 발견하지 못하던 중 1970년도에현 위치인 강남구 논현동에 대지 9,000평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처럼 어렵게 대지를 확보한 그 다음 해인 1971년도에 당국으로부터 강남지역 개발계획에 따른 환지 작업이 시작되어 그 결과로 대지 6,067평으로 환지가 되었습니다.

그후 행정 당국의 행정적인 사유로 대지 확보 후 10년 동안이나 건축 허가를 얻지 못하였으나 1980년도에 건축 허가를 얻고 교회 건축 계획후 17년만에야 교회 건축의 첫 삽을 뜨게 된 것입니다.

2. 새 성전 건축의 과정

그동안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나 총무로의 구 성전으로서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20여년 이상을 지내던 세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1) 착공예배

1980년 2월14일 건축허가를 얻은 후 교회는 곧 새 성전 건축에 들어가기로 하고 1980년 4

월 8일에는 역사적인 새 성전 건축의 착공예배를 감사와 감격 속에 드렸습니다.

(2) 1차 공사

제 1차 공사로 정지공사와 전체 건물의 철골 공사 및 지붕공사를 시작하여 1982년 8월까지 제 1차 공사를 계획대로 진행하여 마쳤습니다. 여기에는 지하주차장, 본당, 교육관, 선교관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처럼 건축이 진행되는 가운데에서도 총무로 구 성전에서는 포화상태로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한 일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는 대형 교회건립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듯하여 참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건널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셨습니다.

(3) 2차 공사

1차 외부 골조공사를 마치고 1982년 9월부터 2차 공사로 들어가 1982년 11월 12일에는 온 교인이 새 성전 본당 자리에 모여 우람하게 지어져 골격을 드러낸 자리에서 상량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계속된 공사는 하루 속히 입당해야 된다는 목표 아래 교육관 및 선교센터의 완공 및 지하 주차장 일부터 시공을 하기로 정하고 공사에 매진하였습니다. 몇 차례의 어려운 고비를 넘기며 1984년 4월, 2차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4) 입당예배

교회는 제 2차 공사가 끝나감에 따라 교회당을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30여년 이상 정들었던 총무로의 교회당에서의 마지막 주일예배를 4월 15일에 드리고, 16일부터 일주일간 이사 기간으로 정하고 전 교인이 동원되어 이사를 하고, 4월 21일 토요일 오후에 선교관·교육관 준공 감사예배를 감격과 감사와 기쁨 가운데 드렸습니다.

그 다음날인 1984년 4월 22일은 한국 선교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주일, 모든 교우가 처음 오는 교회를 찾아 삼삼오오 떼를 지어, 온 가족이 함께 나와 감사 속에서 입당예배를 드려 새 성전시대의 막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본당 1층 전부와 지하 1층 일부를 사용하여 지하 1층에 대예배실을 꾸미고 지하 부속실에 모자실, Video실, 회의실 등을 꾸며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 3차 공사인 본당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3차 공사의 내역

1985년 봄부터 1986년도 말까지를 공사기간으로 정한 3차 공사는 실질적으로 마무리 공사가 됩니다. 이 3차 공사가 끝나면 주변의 정원공사와 환경정리등 일부분을 제외하고 모든 공사를 마치게 됩니다.

3차 공사는 본당 외부 돌 붙이기, 본당 종탑, 공사, 본당 내부 공사, 특수 조명 및 음향시설 공사, 지하 주차장, 냉난방 공사로 가장 정성과 세밀한 공정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공사가 됩니다. 지난 5년동안에도 많은 자재와 기술, 또한 온 교회의 기도와 재정적인 뒷받침이 요구되었었지만 앞으로의 공사는 더한층 세밀한 설계와, 특수한 자재, 완벽한 기술등이 요구되는 바 더한층의 재정과 특별한 기도의 뒷받침이 그 어느때보다 요구되는 때입니다.

4. 우리의 각오

지난 5년(공사착공 이후 지난 해까지)을 돌이켜 볼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온 교우들에 대한 고마움 뿐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공사를 앞에 놓고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도 온 정성을 기울였지만 보다 더한 각오와 노력으로 총력을 기울이는 열심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각오와 다짐을 해 봅니다.

첫째, 한국 교회와 총현교회사에 있어서 새 성전 건축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절실한 필요를 알고 긍지와 자부심 가운데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새 성전 건축은 우리 생애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인줄을 알고 이를 감당할 마음을 가집니다.

셋째, 모두가 한 마음으로 새 성전 건축에 물질과 기도와 정성으로 헌신합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로 마지막 새 성전 공사에 임하여 먼 후일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아들과 딸들에게 물려줄 승리의 노래를 준비합니다.



85년도

교회 재정운영

이 울 선

(장로·기획조정실 부실장)

충현교회가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 안에서 설립 된지도 벌써 31년이란 세월이 흘러 왕성한 청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큰 꿈을 안겨주시면서 꼭 이룩하도록 명령 하시었는데 ① 천국일꾼양성 ② 북한선교 ③ 민족복음화 ④ 세계선교 ⑤ 새성전건축 등이며 이는 곧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일이며 우리가 복 받고 후손이 복받으며 나라와민족이 복 받는 일로서 온교회가 기도드리고 기쁨과 감사하므로 몸과 물질을 다 바치는 헌신이 거룩한 향기가 되어 주님께 상달될때에 성령의 아름다움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게 될것을 믿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을 음미할때마다 저는 신실한 믿음의 형제자매를 생각하게됩니다.

40대의 젊은 안수집사님 헌분은 유행에 걸맞지않는 낡은 양복을 입고 가정의 생활은 지나치리만큼 검소하면서도 십의이념은 풍성한 헌금을 매월 80만원에서 100만원씩 정성드려 바치고 주일 하루를 교회가 임명한 회계부에서 묵묵히 감사하므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계시는 이 젊은 안수집사님을 주님은 어떻게 보시고 갹신가요.

또한분 여집사님은 생계를 유지하기위하여노

점에서 노점상을 하면서도 그날 판매한 전액의 십의一을 주님께 바치며 가난한속에서도 주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얼굴에는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찾아오는 고객에게 예수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성된 성도들이 모인 충현교회에 다섯까지 목표를 이룩하시기위한재정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새성전 건축으로 다소 교회재정의 어려움(과도기적현상)도 있으나 당회장 목사님을 비롯한 온성도의 정성의 기도와 헌신을 주님은 기억하시며 또 우리에게 능력주시는자안에서 모든것을 할수있다는 신념으로 전진하는 우리들에게 밝은 내일이 있음을 믿으면서 교회 재정운영에 대한 몇가지 소견을 기술하려고 합니다.

一. 년도별 세입예산 편성현황

구분 년도	총수입예산 (전년대비신장%)	十一조현금 (전년대비신장%)	총수입예산(100%) 대비 十一조현금의비중%
1985	2. ⁸		62. ¹
1984	7. ⁷	6. ⁴	64. ¹
1983	44. ⁸	66. ¹	64. ⁸
1982	24. ²	27.	56. ⁸
1981	27. ⁷	24. ⁷	55. ³
1980			56. ⁷

二、1985년도 세출예산 편성현황

항 목	%	비 고
예 배 와 교 육	22. ⁵	
전 도 와 구 개	27. ³	
교회행정 및 자산관리	29. ⁵	새설전 유지비가 막대한 비중을 차지함
새 성 전 건축기금	12. ⁴	
예 비 비 기 타	8. ³	
총 예 산	100%	

三、년도별 교회 세대수 현황

년도\구분	세 대 수	전년대비신장%	비 고
1984	5327	18. ⁷	84. 4. 새설전으로이사
1983	4458	2. ⁴	
1982	4336	7. ⁹	
1981	4018	22. ¹	
1980	3290		

위통계를 참고로 세입예산편성현황을 살펴볼 때

① 1980년에서 1982년까지 교인 세대수가 급신장하프로서 1983년에는 세입예산을 대폭인상(82년대비 44.8%) 편성하였으나 실제성장이 둔화되어 84년도와 85년도에는 소폭으로 조정되었고

② 매년세입의 과반은 十一조현금으로 이루어지고있음을 볼수있으며 83년이후 전체수입예산의 60%이상을 十一조현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③ 1985년도 세출예산에서 특기할것은 전반적인 건축재정으로 절약한 12.4%를 새설전건축하는 건축비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종이한장 기름한방울이 모여져서 새설전건축하는데 요긴한 모퉁이돌 역할을 하게될것입니다.

四、재정의 통합운영

1. 재정위원회 구성

위원장 최석주 장로

서 기 이응선 장로

회 계 ① 일반회계 박철훈 장로

② 건축회계 하대선 장로

위 원 장 로 한경일, 오정수, 김영근

안수집사 김형선, 김정태, 최명환, 임기채

권 사 이옥녀, 노영숙, 유순녀, 김석운

서리집사 김광남, 박영엽

2. 상임감사 윤종순 장로

3. 부회계(현금관리)

십 일 조 : 이재기, 김연식, 임봉남, 김두원, 김용선

박병택, 조남준, 이태송, 박춘봉, 오수호

최차용, 최명환

일 정 : 채수경, 주열호, 박근준

감사현금 : 김동삼, 조증광, 김광남

진 측 : 이승철, 조성행, 김형선, 진홍용

집 계 : 김정선, 오희명, 이창순, 최홍신, 공명자

김춘희, 정순애, 정민자, 임경자

선교현금 : 강봉수, 이영만, 전재룡, 김남조

4. 재정운영

교회재정이 한창구로 집약되었습니다.

각부서에서 필요로하는 경상비를 재정위원회심의의를거쳐 영달될때 상임감사의 사전 또는 사후 감사가 필히 행해지며 적합 타당할때 현금이 지출되는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기쁨과 감사하프 로 정성드려 바쳐진 현금을 바로사용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하기위하여 이일에 봉사하고있는 우리들에 경건한마음과 진실한자세로 기도드리면서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하고저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말라기서 3 : 10의 언약의 축복이 온 성도가정에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총현논단

신

약

성

경

에

나

타

난

안

식

일



이 병 학
(장로·중년부 부장)

.....
다음 논문은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에서
구약신학을 전공한 이병학장로의 석사학
위 청구논문가운데 필요한 부분을 발췌
한 것이다.

이병학장로는 본 논문에서 “안식일은
앞으로 완성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
서 종말론적 기대속에(히4:9-11) 천
국의 그림자인 교회에서 열심히(히10:
25) 지켜야할 것이다”고 결론을 맺고있
다. 〈편집자주〉

.....

팔레스틴의 안식일에 대해 복음서에 나타난
일반적인 묘사를 보면 안식일 성수법의 발전상
과 일치하고 있다.

그날에 일을 하지 않기 위한 모든 필요한 준
비가 “예비일”이라 불리운 금요일에 갖추어졌
다. 안식일을 범하지 않으려고 예수님과 두 강
도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금요일에 옮긴 유대인
들의 열심은 이에 대한 좋은 설명이 되고 있다.
안식일에 여행할 수 있었던 거리는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란 표현에서 나타나 있다.

안식일은 손님을 자기 집 식사에 초대하는 날
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이 회당에서 낭독되었으며 안식일이면 예수님
과 제자들도 그 지방의 경건한 자들과 함께 회
당에서 모이는 집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였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께서 유대인의 전통
에 따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
을 범하였다고 하는 비난이다. 안식일에는 추
수를 포함한 모든 일을 금지한다는 규정 때문
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에는 그날에 이삭을
잘라비빈 사건을 놓고 논쟁이 일어났다. 환자
라도 사경을 헤매지 않는 이상 그를 고쳐주면
안식일을 범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당시의

전통이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예수님을 향한 바리새인들의 반대는 병자가 그 다음날까지 버틸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안식일에 그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일어났다.

안식일에 물건을 운반해서는 안된다는 규칙을 위반한 사람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후 침상을 가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을 들고 간 바로 그 사람이었다.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정면 충돌한 것이 결국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를 가져왔다.

예수님은 안식일제도 그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안식일을 지키는데 대한 장로들의 잘못된 유전을 거부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태도를 통해 보여 준 것은 안식일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으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자유하심을 보여 주었다. 그는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고 완전히 하려 오셨다.

복음서에 나타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은 첫째로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먹는 제자들의 이야기에서 시작된다. 이때 모세 율법을 외면적인 측면에서 해석해 오던 바리새인들 간에 논쟁이 일어났는데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의 행동을 안식일을 범하는 일로 간주하였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설명에서는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랐다고 하였으나 마가복음에서는 그점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제자들의 행위를 변호하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암시를 받을 뿐이다. 바리새인들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시장할 때에 제사장 외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마태가 제사장이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안되었다는 말을 더 첨가하였을 때도 그가 주장하고자 한 의미는 바로 이것이었다. 그러나 제사장이 안식일을 범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와 꼭 같은 일을 한 예수님의 행동을 변명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삭을 잘랐을 때에는 제사장들처럼 어떤 제사법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예수님의 행동과 제사장들의 행동을 비교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과 그들의 인격을 대조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예수님은 천상의 대제사장이다. 성전과 그 안에서 섬기는 자들보다 더 큰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다움에 행동할 수 있는 분이다. 마태가 그의 복음서 2장 27절에 기록한 말씀도 이 문제를 연구하는데 중요하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부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안식일 제도를 곡해하는 데서 나온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사 인간에게 허락하신 축복인 안식일을 인간보다 매우 더 중시하는 처사가 된다. 이 축복을 즐기기 위해 사람은 그날을 지키는데 힘이 될 만한 숙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된다.

예수님은 또다시 병고치는 문제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과 논쟁을 하게 되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이 고쳐준 손마른 사람의 이야기이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기록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어떤 바리새인의 두령집에서 식사할 때 고창병든 사람을 고쳐 준 이야기이다. 그는 또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절기 중 안식일에 베데스다 못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다. 그리고 또 다른 안식일에는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셨다.

비록 사진의 내용은 각각 다를지라도 병고친 그 모든 사건안에는 공통된 요소가 들어 있다. 즉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병이 위독해서 고쳐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랍비들은 생사에 관한 위독한 경우에만 안식일 일찌라도 고쳐주도록 허락했다.

그러나 시간을 지체할 수 있으면 아무리 환자를 돌보는 것이 자신의 행동이라 할찌라도 다음날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 해 동안 어떤 경우에는 일평생을 고통받던 만성적인 고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 전통적인 해석대로 하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짐승'을 구해주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호소를 정당화시키기는 곤란하다.

사람이 짐승보다 더 귀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 그 말이 진리이긴 하나 문제의 핵심을 찌르지는 못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서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들어 있었다. 그가 병을 고칠 때는 언제나 그

의 하는 일이 더 이상 오래 기다릴 수 없는 생사에 관계된 문제인 것처럼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면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이 그 사람의 생명에 작용하였다. 따라서 모든 치료는 다 응급치료를 하였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면서 보여 준 이 안식일의 자유가 바리새인들에게는 너무나 위협적인 것이어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였던 것이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파기한 것은 겉으로 보기에 변명할 여지가 없는 도발적 행동이었으나 내적인 의미로 볼 때 그것은 그의 메시아 의식의 은밀한 선포를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친 일에는 동정, 사랑, 자비의 행동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적 행동” 다시 말해서 메시아적 안식일, 구약적 안식의 완성이 세상에 도래하였다는 것을 보여 주는 행동이 들어 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일주일 중 첫날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해서 그들이 자녀들에게 베푸는 것과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가려먹는 일은 다 그만 두어 버리듯이 안식일 성수마저 포기해 버리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안식일이면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였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신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을 때 그가 그들을 발견할 수 있었던 곳은 분명히 회당이었다.

야고보와 예루살렘 장로들은 사도 바울에게 그 성안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는데 다 율법에 열심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 주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 하고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 하노라” 라고 바울은 말했다. 여기서 바울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한 것은 아니다. 생활의 조건이 점차로 변해간 다 할지라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바울이 지킨 것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켜오는 가운데 장로들의 유전을 발전시켜 그 유전을 율법과 동등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바리새인들은 율법보다는 유전을 더 중시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유전을 사람의 유전이라고 책망했다.

성경은 두 종류의 창조 즉 옛 창조와 새 창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네째 계명이 옛 창조의 시대에 속했던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새 창조의 시대에 속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어졌다고 하겠다.

옛 시대의 교회가 처음 창조를 기념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에 속한 사람들은 꼭 같은 이유로 새 창조를 기념하도록 되어졌다. 즉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으로부터 안식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사역으로부터 쉬신 것을 말해 주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첫째날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했을 때 그의 사역으로부터 쉬신 것이다. 안식일 제도는 온전히 하루를 쉰다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안식을 요구하셨을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귀하게 만들고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 순종의 규칙은 십계명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요점은 주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을 다하고 우리의 영혼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안식일 제도가 잘못 지켜졌던 것은 이런 사랑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외면적인데만 치우쳤던 까닭이었다.

안식일 개념은 하나님의 특별계시인 성경말씀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구약성경에 나타난 안식일제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는 영원한 언약으로 신앙생활의 원리와 규범설정에 대한 실제적 안목과 통찰력을 제시해 주고 있다. 구약율법의 원리와 규범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율법주의 입장은 예수님과 사도 바울에 의해서 거부되었고 선지자들에 의해서 냉혹히 비판되었다. 동시에 율법의 원리와 규범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신앙지상주의적 입장도 예수님과 사도 바울에 의해 거부되었고 칼빈주의적 청교도 내지 장로교 신학자들에 의해 비판되었다.

계시의 점진적 발전을 믿는 개혁주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약율법의 완성을 구속사의 발전과정에서 이해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 창조주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기념하며 또한 앞으로 도래할 안식을 바라보며 하루를 구별하여 세속적 업무를 중단하고 예배와 교제와 봉사를 위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므로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특수한 언약의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일은 극히 당연한 성서적 신앙원리요 규범이라 하겠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사역에 대한 올바른 신앙적 안목이 없이 주일성수를 바로 할 수 없다.

Jewett 교수는 주일성수의 올바른 태도와 방법을 제시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의 공로나 노력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식일은 율법주의적인 의무수행의 동기에서나 의식제도주의적인 미신사상의 동기에서 성수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하겠다. 그렇다고 안식일이 주일로 변경된 것이 합례가 세례로 변경된 것처럼 안식일 제도를 지킬 필요가 없는 것도 아니다. 안식일은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것으로 모세 제도 아래 의무만이 아니고 항구적인 의무가 된다. 그 이유는 다음 사실로서 알 수 있다.

1) 안식일은 창조시에 제정된 것으로 죄와 구속과는 별도로 노동제도, 결혼제도, 번식제도와 같이 항구적인 제도이기 때문이다.

2)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사역을 하시고 쉬신 것을 모방하여 사람들이 지켜야 할 제도가 된다.

3) 안식일은 기본적 율법의 하나로 십계명 안에 포함되어 있다.

4) 예수님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 제도의 목적과 정당성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결론으로 주일 성수의 올바른 태도와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해도 죄가 없음은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즉 죄인을 구속하는 일을 위한 전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보존되어야 할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경건된 일과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행위는 안식일이라 해서 중단해서는 안된다. 이날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람과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누며 봉사하는 날로 지켜야 한다.

둘째, 안식일은 창조를 기념하는 축제로서, 구속을 기념하는 감사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함으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지켜야 하며, 이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참으며, 절제하는 마음으로 지켜 나로인해 다른 사람의 기쁨을 상실케 하는 행위는 금해야 한다.

세째, 이와 같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날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이날을 위해 세속적인 일, 즉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복으로 주신 땅을 정복하기 위한 모든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에 참여함은 물론 육체의 일, 즉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모든 일로 인한 말과 생각과 행위를 금해야 할 것이다(갈 5 : 19, 사 58 : 13, 14 참고).

네째, 안식일은 앞으로 완성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종말론적 기대속에(히 4 : 9 - 11) 천국의 그림자인 교회에서 열심히(히 10 : 25) 지켜야 할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날을 지키기 위해 기쁨으로 순교의 길을 택한 것을 생각해볼 때 우리는 자유와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범했던 것 같이 복된 안식일을 지키지 않거나 그릇 지켜서는 안되겠다.

본 논문을 작성하면서, 본인이 의도한 대로 안식일 성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데는 연구자료를 충분히 고찰할 시간도 부족했고, 여러가지로 실력도 모자라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됨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 깊은 연구와 고찰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배가운동을 위한 전도법

다음 원고 내용은 지난 1월22일 실시된 전도위원회 주관 남녀 지회 임원단 및 주교 각 기관 전도 담당자 교육에서 행한 강의 내용이다.

모든 교인들에게 참고가 될까하여 여기에 게재한다.

(편집자주)



이 세 열
(목사, 전도위원회위원
민족복음화 연구소장)

1. 서 론

여러가지 전도법이 있는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전도에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전도의 교훈을 기초로 전도법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사도들의 전도 방법을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많은 전도의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사영리 전도법등 전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본문에 보면 사마리아여인을 전도한 실례를 찾아 볼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중 은혜를 받고 기쁨이 넘쳐 동네에 뛰어가서 와보라 전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도는 힘든것이 아닙니다. 어떤사람은 많은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지만 여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뵈옵고 즉시로 전도했던 것입니다. 전도는 쉬운것 입니다.

◆ 본 론

와보라 전도법

1. 성경에 보면 와보라 전도에대한 실예가 세번 나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랍비여 어디게시오니이까”물을때 “와보라” 하였던 것입니다. (요1 : 38-39)

두번째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하였을때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날 수있느냐” 하였을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보라” 하였을것입니다 (요1 : 46)

세번째는 오늘본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와보라 전도했던 것입니다. (요4 : 28-29)

2. 와보라 전도의 적용

와보라전도의 적용은 다양합니다.

나다니엘처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와보라 와보면 알수있지않느냐 왜 와보지 아니하고 반대만 하느냐의 뜻으로도 와보라 할수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랍비여 어디계시오니까 관심을 나타낼때에도 와보라 권유하게 되는것입니다.

또한 친분이 두터운 동네와 이웃에게도 와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하면서 전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와보라 전도는 반대자나 관심있는자나 무관심한 자에게나 누구에게나 전 도할 수 있는 권유 방법인 것을 보게됩니다. 또한 초신자인 사마리아 여인이나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나 예수님이나 누구나 사용할 수있는 권유방법인것을 보게 됩니다.

3. 와보라 전도법의 특징

첫째로 와보라 전도에는 보여줄것이 있어야 합니다. 와보라 권하고서 보일것이 없으면 실망하고 돌아 갈것입니다.

오늘본문에는 보여줄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로 나타났습니다. 사마리아여인은 그리스도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가 컸던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하고 구원하여 줄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뜻 은 기름부음받은자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등을 가리키며 특별히 나라를 구원할 구세주를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재림을 교회내에서는 고대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알지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전도에는 믿지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아니냐가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믿지않는 세상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어야 되겠습니까?

둘째로 와보라 전도에는 보여줄것이 있을뿐 아니라 보고나서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온동네 사람에게 와보라 전도했으나 그들이 와서보고 난후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줄 알이니라"고 했던것 입니다. 와보라 전도에는 보여줄 것이있고 보고나서 믿는 믿음을 주어야했던 것입니다.

나다니엘이 예수님께 오셨을때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고 하였던 것입니다. 믿을수 있는 믿음의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二 여러가지 전도법

성경에는 여러가지 전도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사도들이 설교를 통해서 전도했습니다. 사도행전19장에 보면 바울사도가 회당에서 하나님말씀을 강론하며 가르친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의 전도의 주방법은 설교였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배운 사람은 예수님의 교훈을 강론함으로 전도 할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2 장에 보면 설교를 통해서 전도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는 전도의 한가지 방법인것을 알게 됩니다. 설교처럼 예수님의 교훈을 잘 전하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설교와 교육은 전도의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로 성경에서 치유를 통한 전도의 사례가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도 3 년동안 많은 병자를 고치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뿐아니라 전도대를 보내면서 치유의 은사를 나누어 주면서 전도케 했던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행전 2 장에 성령충만을 받은 후 많은 병자를 고치면서 전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치유의 은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도인은 성령충만 받아야겠고 치유의 은사를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세째로 하나님나라와 주님의 십자가의 속죄와 부활과 재림의 복음을 전하여야 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예수천당" "예수천당" 외치면서 전도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예수천당" 전도법도 훌륭한 전도법인줄압니다.

오늘날 많이쓰는 사영리 전도법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속죄의 복음을 전하는것은 좋은 전도법인줄 압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사도란 뜻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의 뜻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만이 부활을 힘있게 전했든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재림을 내세우면서 재림하신 주님을 전 할수도 있습니다. 전도의 방법은 다

양합니다. 다양한 전도방법을 연구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는 줄입니다.

三, 여러가지 전도법의 적용

전도법은 다종지만 그렇다고 언제나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서 전도받을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1. 치유를 통한 전도

예로서 여기에 환자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다른 전도법보다는 치유를 통한 전도가 가장 효과적인 전도인 것입니다.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는것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어서 모든 병을 고칠수 있다는것을 강조하고 특히 세상에서 의사나 약으로서 고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고칠수있다는것을 강조하면서 전도할때 전도의 효과는 큰것입니다.

전도에는 육신의 병의 치유만이 목적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 목적이므로, 치유를 통한 복음의 전도가 가미하여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0문둥이를 고쳤을때 한사람만이 돌아와서 사례했던 것입니다.

2. 죄로 고민하는 자에게 전도

예수님당시 바리새인은 자기들만이 의인이고 다른 사람들은 죄인시 했습니다. 특히 세리와 창기와 사마리아인등은 무시를 당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죄로인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복음을 전하여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사용하는 사영리전도법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전도법입니다. 죄로인해 양심의 가책과 고민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의 십자가는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3. 성공과 축복을 갈망하는 자에게는 특별히 축복전도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전도는 특별한 복음전도의 방법인 것입니다.

신명기 28장2 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가나 들어가나 복을 받고 손으로하는 모든일에 복을 받을것을 말했습니다. 하나님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을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축복을 강론하고 축복을 기도하며 복의 근원이 되신 복주시는 하나님을 전하여야 될 것입니다.

결 론

전도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신자나 평신도가 전도할 방법은 “와보라” 전도밖에 없습니다. 치유의 은사를 활용할수도없고 설교나 강의를 통해서 전도할 수도 없을때 무조건 “와보라”전도하는것입니다. 반대하는자에게도 “와보라”알고싶은 호기심이 있는 자에게도 “와보라”축복을 받고자하는 자에게도 와보라 죄로 고민하는 자에게도 와보라 병으로 고생하는자에게도 와보라 “와보라”전도법은 누구에게나 사용하는 전도법입니다.

그러므로 배가운동과 급성장을 바라는 교회에는 특별히 장려해야될 전도의 방법인 것입니다. 교육을 받은 교역자나 선생님은 설교나 강의를 통해서도 전도하지만 초신자는 그 이웃들에게 와보라 권유함으로써 교회에 끌고와서 등록시키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은 기도 많이하고 치유 은사를 받고 전도할수있지만 평신도는 무조건 “와보라”식으로 끌고와서 교회에 등록시킴으로 교회의 부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평신도 전도에는 그이상 전도법이 없는 것입니다.

원고수시모집

「월간충현」은 교우 여러분들의 원고를 수시로 접수합니다.

뜻이 있으신 분은 다음 요령에 의거하여 투고 바랍니다.

— 다 음 —

종목 : 시, 수필, 단상, 신앙간증, 전도성공사례, 동요, 독자제언, 소설, 기타.

매수 : 200 원고지 8 내지 17장

제출 : 기획조정실 홍보출판부

마감 : 매월 20일까지

월 간 충 현

도살당하는 양들 틈에서

李 鍵 淑

뭐니뭐니 해도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은 배고픔이라고 한다. 그것도 인생의 막바지를 살아가는 주름진 사람들의 배고픔은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어린 아이의 배고픈 얼굴은 모두를 슬프게 만든다. 비비꼬인 팔 다리, 해골을 연상시키는 얼굴에 뺨 뚫린 눈하며,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다는 듯 멍해진 처연한 눈빛, 우리는 그러한 사진들을 슬그머니 넘겨버린다.

이디오피아의 기근과 가뭄은, 이제 지구촌이 아니라 한 가족 같다고 떠벌리는 과학 문명을 살아가는 이 땅위의 사건이다. 영국왕이 서거했다는 소식이 전 세계에 전해지는데 두 달이 걸렸다는 그 옛날이 아니다. 통신망의 발달로 몇초 안에 전 세계의 팔목할 만한 사건들이 TV 화면 위에 총천연색으로 보도되는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렇지만 살갗이 까맣고, 언어와 문자가 다른 이방인이 겪는 일이니 어쩔 수 없이 해가며 슬쩍 넘겨버린다. 이따금 고기가 올라간 밥상을 대할 때 내 영혼이 그 사진들로 인해 조금 괴로워하지만 쪽으로 응큼하게 응얼거린다. 오! 주님, 우리 민족을 사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6.25때 그들과 엇비슷한 고난을 받은 우리 민족을 구해주신 주님, 저희들에겐 이런 비극을 허용치 말아주소서. 과거에 받은 것으로 너무 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만히 안도의 숨을 내쉬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그런 내가 부끄러워지면 미국 같은 부자나라가 있으니 곧 해결될거야 해가면서 말이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도살 당하는 양들이 어찌 육신의 굶주림에서만 나오겠는가.

이번 연합고사에서도 거의 이만오천여명이 떨어졌다고 한다. 그나마도 내 아이가 중 3이라 발견한 사실이다.

「엄마, 우리 반 애들이 꽤 많이 떨어졌어요.」

「어머! 그 시험에 떨어지는 아이들도 있지?」

「그럼요, 눈물을 뚝뚝 흘리는 아이도 있고 슬그머니 책가방을 싸들고 집으로 가버리는 애들도 있는데 내 마음이 너무나 무아파 혼났어요.」

친구가 당한 그 아픔 때문에 눈물이 글썽해지는 아들의 눈망울에서 도살 당하는 양들을 떠올렸다. 이제 한참 피어오르는 그 어린 것들이 터뜨리는 울음 소리와 신음 소리가 어른들을 향해 살갗을 칼바람처럼 파고들었다.

인간이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태어났건만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상한 제도에 얽혀
 흥측하게 일그러지고 있다. 금년에도 어김없이 겨울 바람을 타고 대학교 문전을 서성이
 는 군상들이 신문을 장식했다. 온식구가 동원된 싸움터요, 전쟁의 와중에서 독도법을 익
 숙하게 읽어내는 장교처럼 무장한 아들과 비장한 각오로 따라나선 엄마와 아빠들의 사
 랑 펄펄 끓는 열기가 해마다 한바탕씩 치러지는 현장은 분명 고풍가는 사회의 한면이다.
 눈치작전이니, 배짱병이니 하는 이상한 단어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이 계절엔 왜 눈이
 그리 많이 쏟아지는지. 어차피 숫자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많게 마련이고 또한 그것이
 정상일 것이다. 그러나 아주 튀어나지도 못하고 밑바닥을 기지도 못하는 가장 많은 사
 람들끼리 눈치로 싸우는 마당에서 어병한 양들은 도살 당하기 마련이다. 현 입시 제도
 는 고쳐야해, 선(先)시험, 후(後)지원은 악습을 만들고 있어, 젊은이들이 실력대결로
 정당하게 살아가기보다 약삭 빠르게 사는 방법을 익혀주는 갈아뭇길 제도라니까, 옛날
 처럼 선(先) 지원, 후(後) 시험으로 바뀌어야해 눈치작전에 놀란 사람들의 분노가 왈글
 락달글락 요란하다. 이젠 순 윗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입시철이면 모두 한숨을 쉬지만
 곧 다른 나라의 기근처럼 멀리서 방관하게 된다. 여기서 상처입은 양들의 아픔을 그 누
 가 생각해본 적이 있단 말인가.

곧 치루어질 국회의원 선거는 신문이나 TV만 떠드는줄 알았더니 우리 동네도 그 열
 풍에 휘말려들었다.

「주는데 받아먹고 구경이나 합시다. 우리 똑똑한 사람들은 받아놓고 슬슬 웃어 주는
 거야. 글썄 꼭 그 사람을 찍지 않아도 돼요.」

몇차례 조르는 이웃 권사님의 손에 끌려 생전 처음 선거의 현장을 구경하러갔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 세상을 모른다는 그녀의 귀뜸이 어슬렁 어슬렁 따라나서게 했다
 고 할까. 온통 여자들 속에서 악다구니치며 뿔아달라고 목청을 돋우는 뚱뚱한 중년의 신
 사를 뒷목에 세워놓고 입이 찢어지게 아귀아귀 주어먹는 여인들의 얼굴들, 그것은 곧
 슬픔이었다.

상위의 덩그러니 놓인 인절미, 송편, 꿀, 사이다, 또 너무 많은 사람이 밀려와 정성
 없이 차린 비빔밥, 왜 이들 위로 느닷없이 이디오피아의 배고픈 난민들이 어른거린단말
 인가. /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는데 이 소용
 돌이 속에서 홀연히 빠져나와 산속으로 줄달음질 칠 수도 없지 않은가. 그들 틈에 끼어
 살아야 한다. 아프고 괴롭더라도 아프리카의 기근을 방관하듯 멀리 서지말고 끼여들어
 지혜롭게 살아야한다. 약삭 빠른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야하
 는데 가슴이 답답해진다. 그러나 둘러보면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내 나라요, 민
 족이니 우리 믿는 이들의 기도와 아픔이 모아져서 붓도랑을 이룬다면 먼 훗날 이것은
 가람을 이룰 것이요, 바다를 이룰 터이니 그 속에 잠길 꿈을 가져야한다. 내 발길이 닿
 는 곳과, 내 시야가 닿는 것만 사랑한다면 그것은 큰 가람을 이뤄 흐를 수 있는 힘을 갖
 지 못할 것이다. 좀 높이 뛰어올라 더 큰 세계를 향해 도전할 때 작은 아픔이 큰 아픔으
 로 인해 치료되기 때문이다. 우리 서로가 높은 곳을 향해 묵시적 공감을 가지고 위로위
 로 고개를 젖힐 때, 우리 속에서 도살당하는 양들에게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사랑이 전
 해지리라.



바른 신앙고백

손 경 수

(안수집사 · 제직회서기)
(기획조정위원 · 월간충현담당)

어떤 청년이 신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필수여건 절차 때문에 소속교회 모든 성도들 앞에서 자기 자신의 신앙고백을 했다.

"모태신앙으로 아버지의 구원확신에 힘입어 용기를 얻고 신학교에 입학할 소명의식이 생겼다고 고백했다.

이 얘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의 종적인 관계보다, 육신의 아버지와의 형적관계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되었다는 말과 동일시 된다.

그렇다면 이 청년은 아버지의 신앙때문에 자기 자신이 구원반렬에 끼었다는 말과 흡사하게 들린다.

이 신앙고백은 잘못되었어도 한참 잘못된 내용이었다.

만약 이 청년이 주님과 은밀한 기도중에 예수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깨달았다고 하면 이렇게 신앙고백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교인들의 신앙상태가 바로 이 청년과 같은 신앙고백을 하고 있는 교인이 간혹 있다는데 놀라움을 금할수 없다.

사회가 다변화해지고, 황금만능이 인격을 사고 팔 수 있는 현시대에서 약간은 정신병적인(?) 교인(성도가 아닌)이 속출한다는데 우리는 관심을 회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

곳곳에 교회당이 세워지고 많은 목회자들이 배출되어 복음전파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도 듣는 자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들었을때 많은 시행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바른 신앙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물론 목회자, 장로, 제직, 그리고 일반평신

도 모두가 동질성의 고백을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도 성도 개인이 주님앞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무릎꿇어 자기 죄를 회개하며 용서받고 긍휼을 입는 자가 아닐까 생각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서있는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주님지신 십자가의 고통을 나 자신이 지고가는 용기가 있어야 하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시는 그 말씀 순종하는 믿음의 권속이 될 수 있는 자가 바로 믿음의 상속자이며, 올바른 신앙고백을 할 수 있는 자라고 생각한다.

그뿐아니라 괴홀려 세운 몸된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자가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이며, 주님에게 제일 기쁘시게 여김을 받는 바른 신앙고백자이다.

가짜가 진짜를 뺏치는 현실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칫 빠지기 쉽고 현혹되기 쉬운 「불신」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시간 시간 도전해 오는 사탄의 꾀계에 맞 설수 있는 용기있는 믿음 신장에 더욱더 기도로 돈독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우리는 세상이 어지럽다고 해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성도들이 약해지거나, 미혹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하고, 좀 진한 고통과 환난이라도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면 참고 견디는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 모두 바른 신앙고백으로 몸된교회를 더욱더 충성스럽게 만드는 진실된 성도들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인도네시아(서만수 선교사)

— 기도제목 —

- 1) 선교사 부부의 영육의 강건과 성령충만을 위해
- 2) 한인교회의 부흥과 발전 및 선교 참여의식 강화를 위해
- 3) 선교부에 필요한 동역자 및 이리안자아에서 필요로 하는 2명의 선교사 선발과 파송을 위해
- 4) 개척선교지의 모든 교회의 부흥과 자립 및 후원사업의 원활을 위하여

서독(육호기 선교사)

- 1) 12월 4일부터 13일까지 하나우한인교회 추기대심방을 실시
- 2) 12월 20일 비스바덴교회에서 Versorgungs Gemeinee 독일인 교회와 (Weller목사 시무) 연합 성탄절 예배를 드림
- 3) 12월 29일 비스바덴 교회에서 여전도회 주최 송년예배를 드림
- 4) 12월 30일 세교회 성탄예배 모습을 담은 사진 17매를 보내심

— 기도제목 —

- 1) 선교사 가족의 건강과 자녀 교육을 위해
- 2) 세 한인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 3) 현지인 및 유럽복음화의 큰 사역감당을 위해
- 4) 전국적인 폭설과 강추위로 인해 교통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사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고 사명 감당하도록

태국(이준교 선교사)

- 1) 제 3 세계선교와 전략등에 관한 지식을 교환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생각하며 2월 26일부터 3월 27일까지 싱가포르에 있는 학계연구원 세미나에 참가예정

— 기도제목 —

- 1) 선교사 가족의 건강과 특히 두 아들 석식군과 석현군의 학업과 성장을 위해
- 2) 싱가포르 선교세미나 참가계획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부재중에도 교회가 안정되고 성도들의 신앙이 견고해지도록
- 3) 대림현장교회, 포트사이드

가정교회의 성도들과 교포 복음화를 위해

- 4) 현지인 개척교회의 부흥과 발전 및 현지인 지도자 육성을 위한 기독교 수양관건립을 위해
- 5) 원주민 선교사업의 성공을 위해
- 6) 교회의 안정과 증축을 위해
- 7) 가족들의 건강과 자녀들의 학업을 위하여

파라과이(김재창 선교사)

- 1) '84년 12월 7일 원주민 개척교회 교사특강을 가짐
- 2) 12월 9일 '85년 제직을 임명(서리집사 남·여 126명)
- 3) 12월 14일 주 파라과이 한국 대사관 초대연에 참석 김성미양 교육공로 감사장을 수여 받음
- 4) 25구 102명의 구역권찰을 임명, 신앙월력을 분배
- 5) 12월 23일 아순시온교회 창립 9주년 감사예배와 교사 성가대원을 임명
- 6) 12월 25일 성탄축하 예배와 함께 원주민 장로교회 구제 사업을 실시

칠레(유재일 선교사)

- 1) 본교회가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식을 듣고 기도중에 있음

- 2) 선교회에서 보낸 신앙월력을 칠레 정부기관 및 교민 사회에 분배하여 좋은 효과를 얻음
- 3) 유선교사 새성전 건축현장에서 건축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돌보고 있음
- 4) 십일조 봉투 및 '85년도 구역공과, 중·고등부 하기수양회 공과 교회용 헌금주머니 등을 청원

— 기도제목 —

- 1) 선교사 가족의 건강과 성령충만을 위해
- 2) 한인연합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 3) 새성전 건축의 순조로운 진행과 재정해결을 위해
- 4) 칠레원주민 선교와 사역자 육성을 통해 영혼구원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벨기에(김성완 선교사)

- 1) 성탄축하 기념예배시 안트워프항구에 정박중인 한국국적 화물선 “진달래호”의 선원 20명을 초청하여 브랏셀 성도일부와 선원 선교교회 성도들이 함께 “한국선원선교교회”에 모여 따뜻한 사랑과 기쁨중에 뜻깊게 보냄
- 2) 성탄절에 각 구역별로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고 선원 26명에게 선물도 증정하며 낮은곳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구주성탄을 뜻깊게 보냄
- 3) 성탄헌금 전액을 거제도 애광원 정박아수용원에 보내 구제헌금으로 사용
- 4) 브랏셀 한인교회의 예배처소 이전을 위해 구체적으로 계획 착수중
- 5) 선원선교교회는 격주로 선

박에 승선하여 예배를 드림

— 기도제목 —

- 1) 선교사와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 2) 브랏셀 한인교회와 모든 권속을 위해
- 3) 외항선 선교교회의 발전과 활발한 활동을 위해
- 4) 새로이 이사할 사택을 위해
- 5) 교회가 재정적 자립이 속히 이루어 지도록
- 6)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선교를 하며 구제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 7) 수많은 영혼구원을 위해 영력있는 목회, 선교사가 되도록

이스라엘(김주경 선교사)

- 1) 할렐루야! 1월13일 예루살렘 한인교회 당회장으로 취임
- 2) 대학원에 복학수속하여 계속해서 “유대인 역사”를 연구하며 히브리어에 전념하고 있음
- 3) 성지연구소 설립을 위해 여러방면으로 연구와 준비작업중
- 4) 성지연구소의 등록과 사업적 운영을 위한 많은 배후의 기도와 후원이 요구되고 있음
- 5) 예배위원회에서 제작한 복음성가집 50부와 신앙서적 등을 청원

— 기도제목 —

- 1) 선교사 가족의 영육의 강진함을 위해
- 2) 성지연구소가 이스라엘 정부에 등록되어 앞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과 공헌을 할 수 있도록
- 3) 예루살렘 한인교회가 믿음

으로 성장하며 또 봉사와 사명이 넘치는 모범적인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 4) 선교사에게 영력을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또 학업의 성과를 위해 지혜와 강진함을 얻을 수 있도록

홍콩(오치용 선교사)

- 1) 12월31일부터 1월1일까지 송구영신 행사를 가짐
- 2) 1월6일(주일) 신년 첫 성찬예식을 거행
- 3) 1월27일 '85년 신임 제직 임명을 함
- 4) 1월6일부터 2월 10일까지 신임 임직자 훈련을 가질 예정
- 5) 오치용목사 1월2일, 9일 신년예배시 고 홍종만 목사가 시작한 국제결혼 여성들의 모임단체(주로 홍콩한인교회 교우)인 “유니게”정기 모임에서 설교함.
- 6) 예배당 및 선교교육관 확장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3, 4월 모임을 위한 바자회에 사용할 물품 후원을 요청해 오심

— 기도제목 —

- 1) 선교사와 가족의 영육의 강진함을 위해
- 2) 홍콩 총현교회의 안정을 위해
- 3) 선교훈련 계획을 위해
- 4) 홍콩교민들의 전도를 위해

인도(엘리아 겔간 선교사)

- 1) 장스카르지역 성경배포 전도사업을 보여주는 사진 2매와 함께 현지소식을 자세히 담은 선교활동 보고서를 보냄
- 2) 총현성도들의 기도로 한달 반만에 안드레아스군 위기

를 넘기고 좋아짐 이번 전염병으로 많은 어린이들이 죽음

- 3) 작년 10월22일 사도님 친정인 다질링에서 권남 르우벤 키메드군 득남

— 기도제목 —

- 1) 전도사역에 각각 쫓기시는 선교사 부부와 두 아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 2) 성경배포 및 전도지를 통한 전도활동의 큰 열매를 위해
- 3) 두개의 전도소 및 실험농장, 농로개설등 지역개발사업의 성공과 결실을 위해

일본(유병세 선교사)

- 1) 연말연시로 분주하여 소식 늦어진것 사과하면서 귀한 소식 전함
- 2) 본부에서 보낸 연말연시 선물도착하여 기쁨과 감사와 축복의 기도드리
- 3) 히로오교회에서 이윤오 권사와 함께 예배드리고 그주간 설교함
- 4) 부인성경반 인도하는 가운데 12월26일부터 1월 24일까지 동기 방학
- 5) 신년도에도 능력 주시는 주님안에서 맡기신 사명 다하도록 배후 기도 부탁

— 기도제목 —

- 1) 선교사 부부의 영육간의 건강과 눈과 얼음길을 다닐때 선교사 부부의 발걸음 안보
- 2) 중환자 심방 및 현지인 전도활동에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시도록
- 3) 현지교포와 의사 유학생등 전도에 큰 열매 나타나도록

라성총현교회(정상우 목사)

- 1) 정상우목사께서 본회 회장

한경일 장로 현지방문 맞아 환대하시며 대화와 업무협의하는 가운데 선교 협력을 다짐

- 2) 금년도부터 애굽 선교부 지원의 일부 감당기로 확정함
- 3) 국내 개척교회 후원 사업도 8개처로 확장함

— 기도제목 —

- 1) 정상우 목사 내외와 자녀들의 건강 및 성장과 학업을 위해
- 2) 라성총현교회의 부흥과 발전 및 성도들의 사랑과 믿음의 성장을 위해
- 3) 현지인 선교 및 세계복음화를 위한 선교사업 참여와 협력을 위해

털사총현교회(강성진 목사)

— 기도제목 —

- 1) 강성진 목사와 가족의 건강과 교회에 헌신봉사하는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
- 2) 장로교 정통신앙에 입각하여 전도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서 털사총현교회가 안정되고 성도의 사랑이 충만한가운데 부흥발전하도록
- 3) 새성전 건축준비가 잘 이루어지며 은혜가운데 시공되도록
- 4) 한인교포 및 현지인 선교의 길이 크게 열리도록

뉴욕총현교회(박종만 목사)

- 1) '85년 1월 1일 신년축하 예배를 드림
- 2) '85년도 신임 주일학교 교사 및 성가대원을 임명
- 3) 매일저녁 10시에 교회와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세계를 위한 기도시간을 가짐

— 기도제목 —

- 1) 2월경에 부임하실 박종만 목사와 연로하신데도 불구하고 수고하시는 손계웅 목사를 위해
- 2) 뉴욕총현교회의 모범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 3) 새로이 봉사할 임직자들을 위해

본부소식

- 1) 1월13일 김주경선교사 예루살렘한인교회 당회장 취임 축전 발송
- 2) 1월27일 선교주일을 맞이하여 16부 주일학교 공과교재를 만들어 선교주일시 공과교재로 사용코자 나누어 줌.
- 3) 본회 회장 한경일장로 사업차 1월6일 출국, 로스엔젤레스에 기착 정상우 목사와 선교 업무 협의하고 1월21일 귀국
- 4) 1월13일 선교주일행사 준비를 위해 국장모임을 3부 예배후 선교회 사무실에서 가짐
- 5) 1월20일 실행위원회 월례회를 선교주일행사 관계로 본부 사무실에서 갖고 '85년도에 수고하도록 위촉된 분들의 인사소개가 있었음
- 6) 선교주일을 위해 선교 사진전을 본당입구 벽보판과 광고란을 이용하여 가짐
- 7) 1월27일 선교주일을 맞아 대예배시 당회장의 "와서우리를 도우라"는 제목의 설교와 함께 선교헌금 작성의 순서를 가졌으며 저녁 예배시에는 한경일장로 사회 부회장 이옥녀권사의 기도 선교성가대의 찬양의 순으로 선교회 헌신 예배로 온 교회가 선교를 위해 헌신함

기독교의 기본 진리

존 스토틀 지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할 것 없이 기독교의 참된 본질과 신앙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의 본질과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맹목적으로 또는 자기 개인의 이익 추구만을 위하여 교회당출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무슨 이유에 기인하는 것일까?

지각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한국의 교인들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므로 점점 속화되고 부패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고 있으며, 한국교회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구하는 영적인 차원을 도외시한 채 너무 물질적이며 현재 구복적인 면에 치우쳐가고 있음을 심각하게 염려하고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나 하나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정확 무오한 성경이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탐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독교의 기본진리」(원제는 Basic Christianity)라는 본서는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기독교의 본질을 평이하면서도 예리하게 파헤쳐 주고 있는 책이라고 하겠다. 저자 스토틀(John Stott) 목사는 이미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분으로 현재 영국 런던 윌소울 교회의 원로목사로서 문서및 강의를통해 세계복음화를 위해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영적인 거성 이시다.

저자는 본서를 통해서 “예수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냐? 그는 과연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생을 다바쳐 헌신할만한 분인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이와같은 질문들을 말씀을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증거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질문들은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가볍게 다룰 수가 없다. 오히려 이러한 질문들에 솔직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독교자체가 바로 역사적인 객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며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 작용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본서의 특징은 바로 기독교의 기본진리를 예수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중심으로 간명하게 파헤쳐 놓은 점이라 하겠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바로 죄인인 인간이 예수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응답해야 할 것인가도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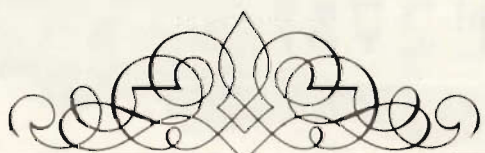
우리의 삶, 우리의 생애, 이 모든 것을 남김없이 예수그리스도에게 헌신하며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에서 참된 봉사를 해야 하며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할 것을 본서는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

신학원 시절에 원서로 감명깊게 읽어 내려간 이책이 번역되어 나온 것을 알게 된 것은 그후 얼마지나지 않았지만 이책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일독해 볼 충분한 가치가 있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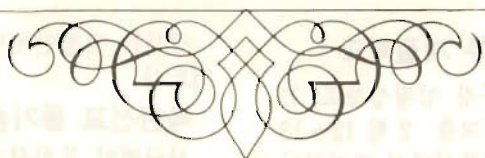
사실 본서는 지난해 교사양성부와 주일학교 교사재훈련반 필독도서로 지정될만큼 그리스도인이면 그가 초신자이건 교회생활을 오래한 자이건 가릴 것 없이 하늘의 양식으로 삼을 만한 귀중한 책이다.

특히 이 책을 기독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불신자에게 권장해도 매우 유익한 책인 줄 알아 먼저 자신이 일독해 보고 그후 권장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서를 추천하고자 한다

추천 / 정관호 목사



교회소식



제11회 선교주일

세계선교회(회장 한경일 장로)는 제11회 선교주일(1월 27일)을 맞아 헌신예배, 선교전시회등으로 행사를 가졌다.

헌신예배는 회장 한경일장로 사회로 진행, 부회장 이옥녀 권사의 기도, 성경 출 17장 8-16절 봉독후 신성종목사가 「여호와 닮은」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세계선교회는 선교주일을 맞아 회원가입과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주제로 선교전시회도 가졌다.

총재인 김창인목사는 선교의 선한 사업에 힘써 헌신하자고 강조하면서 「그동안 우리 교회는 13개국에 21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였고, 지금은 11개국에 14명의 선교사가 피땀흘리며 수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85년 1차 성례식

교회는 85년도 제1차 성례식을 지난 1월 17~18일 본교회당에서 가졌다.

이번 성례식에서는 학습 102명, 세례 77명, 유아세례 26명, 입교 20명, 개종 3명, 총 2백28명이었다.

한편 성찬식은 1월20일 주

일 4부에 걸쳐 실시되었다.

제직 헌신예배 드려

교회는 1월 제직헌신의 달을 맞아 지난 1월20일 오후 7시 본당에서 제직 헌신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수석부목사 장정일목사 사회로 진행, 손경수 집사(제직회 서기)의 기도, 성경 마16:21~28절 봉독후 장로 부부성가대의 찬양, 신성종목사가 「주님이 쓰시는 일꾼」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장학생 추천의뢰

장학위원회(위원장 윤명식 장로)는 85년도 상반기 장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각위원회에 협조공문을 띄웠다.

동 공문에 의한 추천대상자는 총신연구원 장학생(지명 위탁 장학생및 편목포함), 일반대학 장학생 4명, 주일학교 모범 장학생 대학생4명 고등학생



85년 제1차 성례식이 지난 1월에 있었다.

4명, 중등학생(4명) 그리고 교역자 장학생, 특징인 위탁장 학생, 교역자및 직원자녀 장학생등이다.

구비 제출서류는 장학금 청원서를 비롯하여, 이력서, 취학결의서, 사진(명함판) 2매, 서약서, 입학허가서 사본, 성적증명서, 등록금 고지서등이며 오는 2월24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장학위원회에 문의하길 원하고 있다.

1 교구 연합예배

본교회 제1교구(교역자 김창근목사)는 지난 1월18일 오후2시 교육관 2백2호실에서 교구연합예배를 드렸다.

예년보다 배가된 인원 2백20명이 참석하여 1부예배와 2부 각지역별로 친교의 시간을 가져 교구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했다.

당회원과 의 간담회

청년부 면려회 임원들은 지난 1월26일 오후6시 당회실에서 당회원과 의 간담회를 각졌다.

이자리에서는 교회발전에 따른 유익한 대화가 오고 갔다.



교회 본당앞게시된 선교주일 포스터

영아부 계절학교

영아부(부장 엄필성장로)는 겨울 계절학교를 2월 12~13일까지 영아부실에서 개최한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란 주제로 개최되는 동 계절학교의 강사는 조영길목사(교육위원장)와 정소영전도사(영아부지도)이다.

전국 영아부 지도자 교사수련회

교육위원회가 주관하는 전국 영아부 지도자, 교사수련회가 오는 25~26일 본교회당에서 실시된다.

「말없는 교육이 가능한가?」란 주제로 개최되는 동 교사수련회에는 전국에서 5백여명의 교사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강사는 김창인목사, 정소영전도사

북한선교 동기훈련 성료

사단법인 북한선교원(총재 김창인 목사)이 주최한 전도특공대 동기훈련이 지난 25일 끝났다.

8백여명이 참석한 동 훈련에서는 마지막날 충현교회 본당에서 김창인총재 인도로 철야기도회를 갖기도 했다.

봉사위원회 활동개시

금년 새로 신설된 봉사위원회(위원장 박치민장로)가 활동을 개시했다.

주일 아침 교통안내를 비롯하여 주일대예배시 탁아실 설치 운영, 그리고 월간충현 대외발송 작업등의 중요한 일들을 맡아 처리하고 있다.

앞으로 자원봉사를 원하시는 분은 선교관 2층 봉사위원회실에 문의하도록.

한전신우회

회장 김천채 장로

한국전력주식회사 신우회총회가 지난달 회집되어 본교회 김천채장로를 회장으로 유임시켰다.

한전산하 2천5백여명의 복음화에 역점을 둔 동 신우회는 지역사회 전도에도 앞장서고 있다.



봉사위원회가 탁아실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85년 교회수첩 발행

기획조정실(실장 최석주 장로)은 1985년도 교회수첩을 지난 2월3일 발행했다.

동 교회수첩에는 85년도 각 위원회 임원명단, 교역자, 장로 제직등의 주소록이 기재되었고 구역권찰회 조직이 삽입되어 있다.

동 수첩 배부방법은 제직 및 권찰가정에 1부씩 주게된다.

노인대심방 실시

구역권찰회(회장 장정일 목사)는 85년도 노인 대심방을 지난 1월8일부터 시작하여 2월말경 끝날 예정이다.

대상은 만 70세 이상되시는 성도 약 5백여명이다.

구역일꾼 교육

각교구에서 구역일을 돌보는 구역 일꾼 교육이 2월8일(금) 오후12시30분~오후1시까지 본당 대예배실에서 가졌다.

대상은 교구 교역자를 포함하여 지역장, 부지역장, 구역장 권찰이며, 강사는 1부 예배는 김창인목사가, 그리고 2부 교육에는 장정일목사와 이세열목사가 담 당했다.

●각종통계

1985년 1월 13일 기준

전주출석통계 (1월 6일)	구분					구분	남			구분	남			
	예배		부	남	여		계	중	등		부	남	여	계
	주일학교		부	남	여		계	중	등		부	남	여	계
주일학교		부	남	여	계	중	등	부	남	여	계			

교 회 소 식

교구활동시간 및 장소변경

매주일 4부 예배후에 실시 하던 교구활동시간이 교구활성화를 위하여 매주일 3부 예배후로 시간이 변경되었다.

또 교구 활동장소도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 1 교구: 선304호, △ 2 교

구: 본103호, △ 3 교구: 교 201호, △ 4 교구: 교107호, △ 5 교구: 교314호, △ 6 교구: 교304호, △ 7 교구: 교307호, △ 8 교구: 본102호, △ 9 교구: 교212호, △ 10교구: 교 407호,

교구별 전도실시

교회는 85년도 제1차 교구별 전도가 오는 2월 22일(금) 오전10시30분 각 교구별로 일 제히 실시된다.

전도방법은 각 교구별로 조를 편성하여 지정된 지역을 집중적으로 전도하게 된다.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교우는...”

신앙생활의 첫 발을 내딛는 분이나 교회생활을 해온 분중에서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고자 원하시는 분에게 기본적인 구원의 도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하여 매주일 2부 예배후 11시30분 교육관 212호에서 6개월 기간으로 공부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하는 분을 위해서는 통신으로 공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을 마치신 분은 학습을 받게 됩니다.

(새신자부)

전도위, 각지회임원교육

전도위원회(위원장 정석태 장로)는 지난 1월22일(화) 오후 7시 교육관 307호실에서 남여전도회 각지회 임원원 교육 및 교회내 각기관, 주교 전도담당자 훈련을 가졌다.

이날 교육은 제1부 장정일 목사 개회설교, 2부는 강의순서로 진행했다.

3백5명의 임원들이 참석한 동 교육의 강사와 강의과목은 다음과 같다.



전도위원회가 주최한 각지회 임원교육

△정석태장로(85년도 전도 정책 및 사업방침), △이세열 목사(배가운동을 위한 전도법) △이양우목사(전도의 동기와 목적)

□교회소식 32페이지 교육 부서장 경질기사중 새가정부 부장에 윤광일장로, 영아부 부장에 엄필성장로로 바로 잡습니다.

1985년 계절학교(겨울) 실시계획

— 교육위원회 제공 —

구분	1. 영아	2. 유치	3. 유년	4. 초등	5. 소년	6. 중등	7. 고등	8. 대학	9. 청년	10. 직장	11. 계
1. 횟 수	제20회	제16회	제22회	제22회	제22회	제14회	제14회	제14회	제16회	제9회	
2. 주 제	사랑은성내 지아니하며	하나님의 자녀	기쁨의 생활	기쁨의 생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주 안에서 하나되자	배우고 화 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너에게 행한것 같이 너희도행하라	그리스도를 존귀케하자	열심을품고 주를섬기라	
3. 주제성구	고전13:5	요 1:12	빌 4:4	빌 4:4	요 1:1	갈 3:28	딤후 3:14	요 13:15	빌 1:20	롬 12:11	
4. 주제찬송	사랑은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	491장	209장	301장	303장	340장	507장	350장	302장	
5. 기 간	2.12-13	2.12-14	2.25-27	2.25-27	2.25-27	1.28-31	1.14-16	2.13-15	2.14-16	3.2-3	
6. 장 소	선102호 선103호	교205호 교201호	교212호 교201호	교314호	교307호	충현 기도원	충현 기도원	충현 기도원	교육관 307호	교육관 414호	
참 가 예 상 인 원	7. 학생	700	350	330	350	400	440	300	150	180	3,300
	8. 교사	35	65	65	65	70	62	45	15	7	20
	9. 외래 강사									박 회 전	
	10. 내부 강사	조영길 장소영	이성근 정연희	김연이	김성운	김동렬	김장근 이원길	김의경 유희섭	윤태곤 남창우	최봉호 하영자	김오용 장해순
	계	737	417	396	416	471	504	347	167	189	122
											3,766

금현교회 공동의회

제1 남전도회(회장 우기전 장로)는 지난 1월27일 지교회인 금현교회(장병기 강도사 사무)를 방문, 내복 50벌을 전달했다.

이세열목사와 임원등 8명이 동행한 지교회 방문에서 당회장을 대리하여 이세열목사가

공동의회, 재직임명, 성례식을 거행했다.

이날 전달된 기념품은 허송 일집사가 제공했다.

바로잡습니다.

월간충현 1월호(1985년 1월 19일 발행) 제18페이지 조현명장로의 글 새해단상 가운데

대 틀린부분을 바로잡습니다.

左1, 노래한은「노래란」으로, 左10, 드라보의 노래(삿 8:)은「드보라의 노래(삿 5:)」으로, 左17, 10:3은「14:3」으로, 左 새노래만은「새노래란」으로 左4 말 이암은「말미암은」으로, 그리고 右8 노래는라는「노래라는」으로 바로잡습니다.

1 월의 교우동정

새교우

삼성구역 조원웅
학동구역 박병만
신정구역 오준용
월계구역 이경자
행당구역 양경순
개나리구역 이명자
역삼구역 허 신
대치구역 나광주
정담구역 김재원
역삼구역 박정순
개포구역 이덕우
흑석구역 이종명
봉천구역 정숙자
부천구역 강성미
불광구역 김영수
수유구역 노영희
신천구역 박은호
잠실구역 송현규
자양구역 정영진
성수구역 김은석
하왕구역 유주옥
대치구역 문영숙
대치구역 안병순
삼성구역 전수근
논현구역 이재철

신정구역 최미선
상봉구역 양영미
역삼구역 이계희
도원구역 노은자
종암구역 고영석
길동구역 김경섭
남양주구역 오경일
잠실구역 안나수
잠실구역 최연실
송정구역 김성환
옥수구역 김성수
장중구역 홍순옥
논현구역 권정자
대치구역 김숙희
개포구역 정현주
성남구역 조윤자
동부이촌구역 이태훈
시흥구역 김영남
연건구역 김희술
미아구역 김명희
망우구역 박홍운
전호구역 박상철
암사구역 이구야
옥수구역 최동열

역삼구역 구춘자
삼성구역 김경철
이태원역 장윤순
개봉구역 김경숙
남가좌구역 정미란
쌍문구역 조원민
망우구역 김영국
잠실구역 김동기
잠실구역 이송순
구의구역 주혜연
중곡구역 김지희
삼성구역 강명석
역삼구역 김종배
논현구역 양길산
동자구역 강봉원
심곡구역 유재문
하월곡구역 김은혜
동자구역 박남순
목동구역 천중범
명일구역 박분자
정진구역 김매자
금호구역 김경숙
돈암구역 정진석
금호구역 박윤경

행당구역 배연태
사근구역 이창수
행당구역 박상길
도곡구역 서미영
역삼구역 장갑철
동자구역 이명건
문래구역 오정자
역곡구역 김성자
장안구역 우희복
광명구역 권순각
성남구역 장경진
자양구역 이정근
자양구역 유영미
개포구역 송인수
논현구역 양정분
봉천구역 김정자
부천구역 강영락
적선구역 권귀자
성남구역 손영신
시흥구역 윤천하
안양구역 김순옥
역촌구역 조선자
안방학구역 김해산
만리구역 김상연

결 혼



△최종호군과 신혜숙양 (조분자집사 딸)
1월7일 오후 1시.
△김태환군(김병준씨, 정양례권사아들)
과 홍은주양 1월8일 12시
△윤성종군과 이진영양 1월15일 12시
30분
△임승호군(임창철, 정경희집사 아들)
과 유기선양(1월18일 오후 1시 1
△메기열군과 김현숙양(김용학씨 신은
혜씨 딸) 1월19일 12시30분
△양창석군(양재영씨, 서옥재집사아들)
과 최상숙양 1월19일 오후 2시

별 세

△박귀순씨(봉천8, 이순해씨 모친) 84
년 12월31일
△임현복권사(문현순씨 문옥순 집사 모
친 배옥인권사 시모) 1월3일

2월의 행사

□ 당회

1 일/1 월 정기당회

□ 제직회

3 일/정기제직회

□ 기획조정실

10일/월간충현발행

□ 구역권찰회

8 일/구역 일꾼 교육

22일/구역축호방문 전도

25일/대심방 시작

□ 예배위원회

24일/구역권찰회 헌신예배

□ 전도위원회

14일/상설 노방전도인 훈련

24일/전도계획 책자 발간

□ 북한선교위원회

5 ~ 8 일/농어촌부흥회

11~15일/전도대 파송

19~21일/차량전도

25~3.2일/3.1절 구국성회

□ 충현세계선교회

10일/선교특강

□ 교육위원회

12~13일/영아부·유치부 계절학교

14~16일/청년부 계절학교

25~26일/전국영아지도자 수련회

25-37일/유·초·소 계절학교

□ 장학회

26일/장학금 수여

편집후기

월력을 보니 입춘이 지났다.

계속되는 혹한 (영하 10도 이하)도 이제 봄과 함께 서서히 녹아지는 계절 2월에, 우리들은 해외선교에 대한 관심을 갖고 편집에 임했다.

그런 의미에서 기획특집을 해외선교에대한 비전을 구상하고 담당 위원장의 소신을 듣는 난을 마련했다.

그뿐 아니라 새성전시대의 교구활동은 어떻게 운영해야 활성화가 될 것인지에 대하여 구역권찰회장을 맡은 수석부목사를 통하여 진단해보았고, 제3차 공사를 앞둔 새 예배당 건축에대한 이모저모를, 그리고 85년도 교회 재정운영이 어떤 것인지를 담당 위원장들에게 알아봤다.

특별히 여류문인 이진숙 작가를 등장시켜 수필형식의 신앙작품을 게재토록 했으며, 독서정보를 삽입시켜 읽는 잡지로 품위를 엿보이게 했다.

이번 실릴 계획이었던 찬송가 해설, 독자의 편지는 지면관계상 다음호에 약속드린다.

특히 이병학장로의 안식일 성수문제를 중심으로 「신약성경에 나타난 안식일」에 대한 충현논단을 실게 되었다.

바라기는 2월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현의 모든 식구들에게 그리고 「월간충현」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한다.

월간충현의 목적

1. 개혁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월간 충현

1985년 2월호

제13권 1호 (통권 126)

1972년 4월 30일 창간
1985년 2월 5일 인쇄
1985년 2월 9일 발행

발행인/김창인
편집인/최석주
주간/이성근
홍보출판부장/김광신
편집위원/장정일
조현명
조영길
조선근
손경수

발행처/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역삼동66-1

전화 / 562-4181 ~ 5

1 9 8 5

충현교회역사



당회장

김창인 목사



수석부목사 장정일 목사



김원남 목사



한영철 목사



이성근 목사



조영길 목사



김창근 목사



이세열 목사



김영구 목사



조준상 목사



최봉호 목사



유국남 목사



이양우 목사



안석렬 목사



김동열 목사



이원길 목사



박종만 목사



김장근 목사



윤태근 목사



김성주 목사



정관호 목사



협동목사 김희보 목사



협동목사 윤영탁 목사



협동목사 신성중 목사

				
윤 옹 규 강도사	김 익 경 강도사	김 오 옹 강도사	유 창 무 강도사	이 두 란 전도사
				
최 순 복 전도사	구 명 신 전도사	김 경 성 전도사	정 연 희 전도사	정 소 영 전도사
				
현 정 남 전도사	정 복 인 전도사	장 영 자 전도사	이 진 희 전도사	유 순 화 전도사
				
김 연 이 전도사	임 태 주 전도사	김 성 윤 전도사	남 창 우 전도사	유 희 섭 전도사
				
김 정 자 전도사	하 영 자 전도사	장 혜 순 전도사	김 정 순 전도사	정 금 숙 전도사
				
공로 김 연 순 전도사	명예 박 현 모 전도사			